東亞日報

發行兼編輯人 李相協 印刷人 李容文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東亞日報社

產業調查委員會成立에對하야

人選으로써方針을可知

朝鮮產業政策의根本方針을討議하기爲하야成立된朝鮮總督府臨時產業調查委員會의重要議案과및그委員의氏名은임의本報에報道하얏거니와此會의使命이重大한지라 그討議決定하는結果가 吾人日常生活에莫大한影響을及할것은勿論이니 곳吾人의物質生活의基礎를定하는것이며 따라吾人의文化生活의根本을定하는것이라 譬言하면產業政策의根本方針을定함은 곳家屋建築에對하야 그設計를作하며그支柱와基礎를定함과如하니그設計如何에依하야住人의便不便이決定되며 그支柱와基礎如何에依하야家屋의堅不堅이決定될것은明白한事理이라 이제此會의設計는如何하며 그定하랴하는支柱와基礎는如何한고 朝鮮人의便宜를爲하야設計를行하며그幸福을爲하야基礎를定하랴는가 或은日本人의그것을爲하야定하랴는가 日本人과朝鮮人의家屋建築에對한要求가互相不同한것과갓치 그經濟政策에對한要求가또한갓지아니할터이니吾人은알고자하노라 此會는日本人과朝鮮人의그何者를本位하야設計를定하랴하는가

이제猝然히 同會議의成績如何에對하야論議함은 或躝斷인듯도하며或時期尚早인듯도하나 그러나 人選은어느程度外지當局의精神을表示하는것이오또한非常이니 此人選에發表된當局의精神을指摘하야 輿論을喚起하야一般當局의注意를促하는同時에他面에一般社會의輿論을喚起함은必要한徒勞가아니며 또한躝斷이안일가하노라

同委員의總數는委員長과臨時委員外지合하야四十九人인中 日本人側으로는總督府의官吏가八人이오 農商務及大藏省拓殖及法制局의官吏가五人이오 東京及北海道大學教授가四人이오 日本內地在住實業家가十一人이며 此外에委員長의一人이오 朝鮮側으로는貴族이二人이오 實業家가八人合十人이라然則그總數에對한比例로論之하면日本人은殆히五分之四를占領하고朝鮮人은僅히그一分을占領하얏스며 臨時委員五人과學者四人을此比例로부터除外할지라도 日本人數는朝鮮人數에比하야三倍를占領하니 此會議의意思가結局日本人의意思에依하야決定될것은맛치總督府의意思가日本人의意思에依하야決定되는것과如할것이라 況朝鮮人委員의立地와經歷을察하건대貴族은勿論그他의或者는純然한官用實業家며或者는老頑無知한者商家임이리오 則此한組織을取하며如此한人選을行한當局者의精神은可히知할지니 勿論一面으로觀察하면 日本의有力한實業家를網羅하야總督府產業政策에對한資金上援助를謀하며 그朝鮮經濟에對하密接한利害關係를代表케하는同時에經濟上豐富한經驗과知識을綜合하라는趣旨라할수도잇스나 그러나 그根本主旨에在하야日本人을本位로하고朝鮮產業政策의根本方針을討議決定하라하는意思가存在함은隱蔽치못할事實이다 何故오하면웃재朝鮮人委員의數가日本人委員의 그것에比하야越等한差異가有한것이그한證明이며 둘지朝鮮人委員의人選이官用實業家가아니면老頑無知한者多數를占領한것이그두證明이라 萬一當局者가眞노公正한心法과高大한氣宇로써 朝鮮民衆의幸福을念하며發達을期하야 此會組織에當하엿슬진댄 엇지 日本人의意思로써全會의意思를決하는多數를占하게하며 또한無知老頑한者의多數로써朝鮮人產業發達에對한要求를獨斷케하리오 吾人은此를當局者의不明이라하지아니하고그故意라斷定하고자하노니 當局者의聰明으로써엇지此道理를覺치못할理가存在하리오 或者는論하되 產業方針討議에對하야는財產家가適任이오 知識家와理論家가適任者가아니라 하는者有하나 그러나此는吾人의所謂에依하면 國家의政治는財產家에依하야行할것이오有能者에依하야行할것이아니라는愚論과同一하다하노라 頃已破矣라 吾人이이제當局者의注意를促한들何等의所用이有하리오만은吾人은다시바라노니 그朝鮮人의發達을너무無視하지말지어다

佛蘭西의革命과文學의革新(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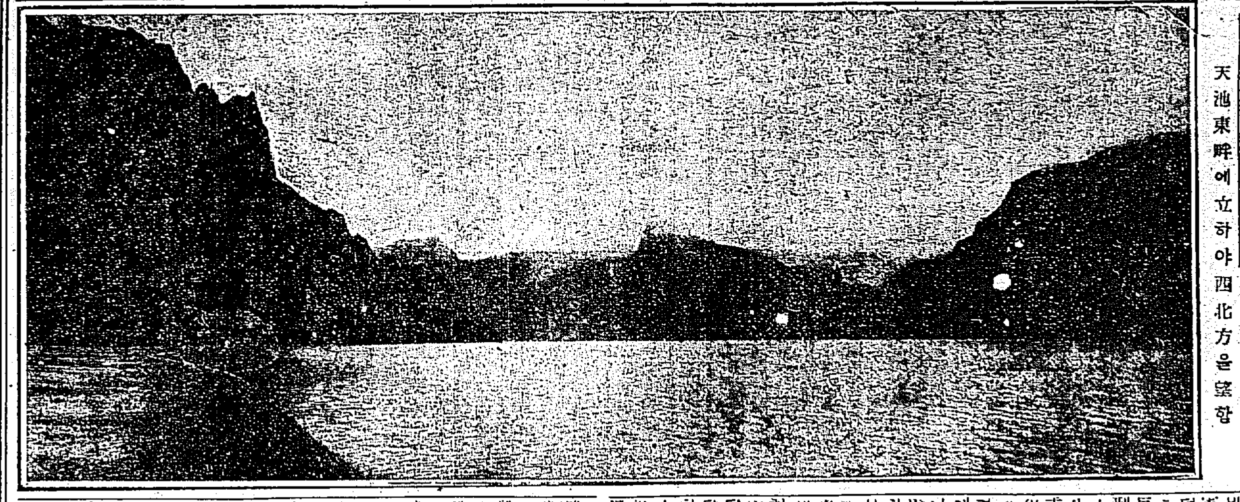
四、革新文學의巨人몬데쓰큐와듸데로

누구를勿論하고佛蘭西의革新文學을叙述함에當하야 그中心이된者로하야서는적어도二個의巨大한人物을看過치못할것이다 그러데二個의巨大한人物이라고하면 말할것도 업시『볼텔』과『루소』이라 余는此二個의巨人을論함에依하야革新文學그것을말하랴고한다

勿論此時代에在하야는볼텔과루소의外에몬테쓰큐、듸데로를爲始하야哲學、文學、科學의各方面에在하야幾多의巨人이輩出하얏다 그中에도몬데쓰큐는볼텔、루소와並稱하야革新文學의三傑의一人에서인다 彼는英으로부터佛國에歸한後에 그庭國을英國式의公國으로改造하야다고傳하기外지 깁히英國風에心醉하얏스며 特히루크의政論을崇拜하야 立法、司法、行政의三權分立을主張하고國王의專制政治를攻擊하얏다 彼의代表作『萬法精理』는英國憲法研究의結晶을蒐集한것이오 彼는尙히此外에『羅馬盛衰原因論』에在하야羅馬共和政治의始終이自由의消長에在한事를論하고『波斯人의書簡』에在하야當時社會의弊害에痛擊을加하얏나니어느것이던지모다時代人心에多大한感動을與하얏다 彼는또奴隸制度에反對하고陪審制度를贊成하고殘刑論을主張하고 信敎의自由를主張하얏스며 彼는基督敎에는公然히反對치아니하야有時乎尊重히함과如한境遇도업지아니하얏스나 그러하나天啓라奇蹟이다하는일에는絕對로反對하얏스며 彼는法律에在하야도 宗敎에在하야도 神權主義를認치아니하고 宗敎問題에는無關係主義를取하는國家를歡迎하얏던갓치배인다 彼는徹頭徹尾理智의우에立脚를置하야國家、社會、道德等에關한理法을오직理智만으로써解釋하라고하얏다그런대彼의所說이얼마나時代를動하는큰힘이되얏던것은그『萬法精理』가當時의識者에依하야 널리愛讀되얏스며 後에벳켈、랄레로란달 모넬等英國憲法의方式에準하야佛蘭西의制度를改革코자努力하던者等이 總히彼의所說을祖述하지아니한者가無하얏슴을見할지라도可히知할것이다

듸데로는哲學、劇作家로하야 自然神敎的傾向을有한幾多의哲學書의著者로하야 特히佛蘭西의文明史上에多大의意義를有한百科全書의出版者로하야 社會上下에籍々한名聲을博하얏다 百科全書는一切의科學的知識을綜合하고人民의蒙昧를啓하기爲하야 彼에依하야計劃되던것이라 官憲의壓迫、同志의離反等幾多의困難한事情이有하얏슴에不拘하고 彼는二十年의長久한時日에此를編纂發行하는일에從事하얏다 彼는當時의社會制度를猛烈히攻擊하고 自然과抗爭되는政治、宗敎、道德은僞政者의狡猾과專橫과에依하야生하는것이라하고그極端의말로는『諸君에게秩序를說하는사람을警戒하라 秩序라고하는것은恒常엇더한者가他人을妨害하는엇더한障碍를造하야他人의支配者가되다하는일을意味하는것이라』고하얏다彼는哲學上에在하야는自然을大全이라고看做하야 個性는그部分으로하고 進化를그法則으로하야 死生은그形態를變하는것이오 本質은刻々히變化하야生命은永久히循環한다고說하고 現代에在한빠륵그손哲學의先驅가되얏다 彼는그所說이激烈함에不拘하고 社會의모든階級으로부터尊重함을受하얏나니 平生에사람을許與하야보사랑한루소도彼에게對하야는多大한敬意를表하얏다 루소는彼를稱하야『幾世紀後에되데로는非常히巨大한者로하야敬仰할것이라 恰似히今日吾人이讚嘆과驚異로써플라톤、아리쓰토틀을眺望하는것과如히 後世의人々은同一한讚嘆과驚異로써되데로를眺望할것이라』고하얏다

白頭山探勝畫報(十)



天池東畔에立하야四北方을望함

◇本社特派員吳班撮影◇

白頭山行

崇敬의標的

白頭山上에서 閔泰瑗

偉觀이라든白頭山은 이제에보앗다 이곳은檀祖의發祥地며 靑邱山은半島山川의祖宗일다 亦是文明의百花源가이곳에비롯하얏고 居民崇仰의標的地가亦是이山일다 檀祖以前에被髮赤脚으로穴居野處하던原始의人은吐火噴煙하는 半空의高峰을보고 敬天畏神하는 宗敎的意識을啓發하엿슬지오 編髮盖首와衣服宮室을비로소배우던大朴의檀朝黔首가 團體的社會的生活을비롯한것도共同의崇敬館되는이白頭가잇슴은外哉이다 대개古人이얼마나崇敬하얏는가는 그名稱만보아도 可히推想할지니史記에散見하는바를左에列擧하건대 北史에는太白山이라하니太白의訓은「한배」이라古語에한은大요배는祖이니即太祖山이라하는意味요 山海經에는日不咸山이라하니古語에불은國이요함은亦大라國大山即國中第一大山이라는意味이며 後漢書에는蓋馬山이라하고讀하야「한마」를作하니即大高山의意味라 大槪그高大雄偉를讚美한意味이며 其他四時長白의美를取한者에는白山、長白山、果勒敏珊延阿林等의名이잇다

또魏書에는古人의崇敬하는俗을記하야曰『人不得上山溲汙하며行經山者ㅣ皆以物盛去라하엿고北史에亦曰『修其敬畏之하야人不得上山溲行하며行經山者ㅣ以物盛去라』하얏스며또이山에關한모든事物에는 天字或은天의意를附한者이甚多하니 그較著한者를擧하건대 山上의大澤은天池라하고 豆滿土門의北과鴨綠波豬의西와 渾同左右의地卽山의周圍를天坪이라하며天池에서發源하야松花江을滿洲語로阿哩烏喇이라하나니即天河의意이며 또그發源處를指하야天上水라稱하는等 無非崇敬의意를表한者이라 그習俗이只今에遺傳하야 上山者ㅣ殺生과亂言을愼하며 더욱이滿洲人은日常에老白山이라고老學을加하야敬意를表할뿐아니라 上山時에는반드시齋戒致祭하야 致敬을忽慢치못한다고한다또그의雄厚博大한懷中에서는幾多의英雄을孵化醞出하얏나니 갓가히는滿淸의愛親覺羅氏를培始하야멀니는女眞ㅣ契丹、渤海、遼金等이 다이山麓에서起하얏다할것이다

偉大中의偉大

如斯한歷史를가진白頭山은果然얼마나偉大한가 나는돌이여그平凡함에 놀나고자하노라 未見時의象想으로는 그高가九千尺이면 應當峨險峻峭하야瞻仰이崔嵬하고登攀이極難하리라하얏더니及其山麓을當한즉一向平凡한坂路이라 終日을行步하되 그러疲勞를不覺하며 數日을前進하되別로新奇가업고 徹頭徹尾히渾厚平凡하야圭角과痕跡이업스나及其絕頂에立하야는비로소그雄大함을알겟고 그崇高함을깨다르니 이것이果然偉大이며 이것이眞正한崇嚴일다 놉혹이肅宗壬辰에淸朝의目을差하야 國境을劃定하던 烏喇總管穆克登도此山에登하야曰「吾皇一統志하기로奉旨探歷하야足跡이殆遍天下라 此山之勝絕奇拔이雖不及中土諸山이나其磅礴雄大之勢則過之로다」하니이로써보면 中國의廣大한幅員中에도 能히其右에出할名山이입슴을可히알것이다 萬一엇던偉大한事物이 能히吾人을感化한다하면白頭山과如한名山이幾多의英雄을産出함이야 엇지偶然이라하라

◇네도한사람◇

시큰둥한師弟

누구의집에先生한분을請邀하야두엇더니道學凡節이무던하야모다敬待하며自己드또한感激히先旺에게自比하는터이오主人兒孩는얼골이곰보요입홈은북술인데才分이鈍하지는아니한지라師弟間에特別히親密하야매양孔夫子와子貢의情誼를부러워하는터이라 그兒孩가論語를읽는데 맛침『子曰 君子不器也 子貢問曰賜也何如曰器也曰何器也曰瑚璉也』하는文을배오다가先生더러問하는말이 『북술이는何如하니잇고曰器也니라曰何器也잇고曰汝는노망퇴이也ㅣ니라』

東亞短評

◇太平 洋會議에對한中國政策은米國의主張과갓치內定이된듯하다는外電이有하는一面

◇北京 政府는라인介氏와십푸손氏를太平洋會議顧問으로招聘하기를決定하얏다는電報

◇라인 介氏는前駐中米公使인데그意見이一方中國政策이되고一方米國主張이되는模樣

◇십푸 손氏는先般中國顧問으로日英盟約破壞에活躍한者그師府會議에對한抱負가如何

◇此兩 氏를顧問으로推戴한中國政府의胸裡는蓋可知 況駐英公使顧維鈞君의特別推薦乎

◇太平 洋會議에外極東問題의解決을期하는反面에努狀政府의極東官傳은愈益猛烈을提呈

◇싸크 를中心하든露西亞의亞細亞小弱國獨立援助運動은今也에更히兩個中心地를增設

◇亞細 亞各小弱國에對한自此努農官傳의大潮流는되밀方面으로부터決堤而洶湧할形勢

◇太平 洋彼岸資本主義的大國家의會議와此岸努働主義的小民族의革命運動對照는奇觀

◇山東 問題解決에는日本人巡警敎官招聘問題로暗礁가生此際에小刀細工拋棄가不可乎

社告

海外에서本報를購讀하시는人士에게는本報代金以外에別로히一個月郵送料金五十錢을要하는바今後의注文에附하신代金도如右히計算하와기玆에謹告함

郵便規則의改正으로因하야郵送讀者에게發送하는新聞封皮에는到着郵便局所名을表記함을要하는바今後地方에서本報購讀을請求하시는人士는先金送付同時通知書에는住所氏名을詳記하는以外에新聞의配達을受할郵便局所名을明記하심을要함

東亞日報社 白

新編尺牘 全一冊 定價壹圓

最新增補

新舊書籍都賣散賣迅速酬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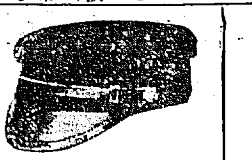
京城府鍾路二丁目八八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三三

九月五日開業

京城府壽松洞六七番地

三一醫院

醫師 李[illegible]求 電話三五四六番



學生帽子製造都賣

京城府公平洞一七番地

帽子專門 元興帽子店

開闢 九月號

◎目下의緊急한問題에對한實地論壇에着眼한 開闢九月號

■東方學理의宗祖인李退溪先生을紹介한 開闢九月號

■大戰에披瀝한再興獨逸의新文化運動인表現主義를說明한 開闢九月號

◎其他論文、學術、文藝의記事가壹百五十四頁에亘한 開闢九月號

◎定價五十錢 ◎郵稅貳錢

發行所 京城府慶雲洞八八 開闢社 振替京城八一〇六 電話一一〇四

各種帽子專門

學生帽子 小兒色帽 製造都賣

京城鍾路四丁目二六 金貞商店

學生帽子新旧 式必詳細記送

朝鮮開城北本町四六〇番地

革新便利靴店

고무底便利靴 고무底經便靴

急告

忠南論山郡陽村面山直里李元永과尹秉重兩人이共謀하고本人의土地印章을僞造하야가지고本人의土地를賣渡하야金錢을騙取하라고目下換種의行動을試하는中이오니一般人士는此에注意하야見欺치勿하시며萬一此에誤入되얏다하야도無効이오니照亮하시옵

論山郡連山面林里 金昌鉉 急告

◈注意 廣告를보신後當場에는必要가업슬지라도後日所用될듯한것은꼭 여서保管하시오매우緊要한때가만소

○○○地方部特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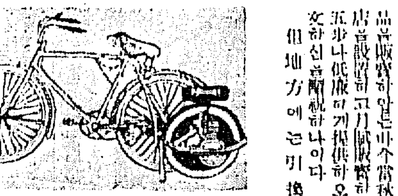
今般地方同業各位와一般需用家諸氏의便宜를圖키爲하야店內에地方部를特設하옵고左記各種商品을直輸入하야大々的廉價로都賣散賣하오니多少를不問하고注文하시면迅速酬應하겟삽

京城府鍾路三丁目八五番地

網緞、洋屬 生學、學布 唐布、麻布 綿布、各種 都賣、散賣

㊍ 朱源榮商店

主任 朱載德 朱錫鳳 電話二〇八七番



顧客 諸位의指導를蒙하와商況이日見發展하압기兹에謝意를表하오며今般米國製(アトラス)號自轉車及各種附屬品을販賣하압고 京鄕間에特約店을設置하고付屬品을廉價提供하오니 陸續來臨하시압

但地方에는引換代金으로도送함

本店京城府鍾路一丁目四〇番地 德昌號自轉車商會

特約店 利川郡邑內 金文容自轉車店 楊城郡邑下里 柳應烈自轉車店 京城鍾路四丁目 德昌號自轉車部

註解附音 尺牘大鑑 上下合編

發行所 京城府鍾路三丁目 德興書林 振替京城三九〇三番

綿系 綿布 洋屬 精糖 麥粉 米穀 賣達 燐寸 染料

輸出入商 株式會社 共進商會 京城太平通二丁目

英美洋行各種染料 朝鮮總代理店

各種『染料』를『廉價販賣』하오니不拘多少하고注文하시옵務望 地方特約店募集하오니希望者는至急通知하시면規則書를付送함 『定價表』는請求하시는대로無代進呈함

惡疫預防 高尚優美 初秋保健

濟生堂藥房 本舖 京城太平通

凉新 特別割引大賣出

紅爐가든三伏蒸炎도蕭瑟한金風一聲에萬象이快淸

此際에快快한洋靴를着用하야心身이尤快淸하도다

此界洋靴가許多한中靑年洋靴는外色이美麗할뿐不啻라原料도堅固하고輕快하기最上位

되子나價格이低廉한中에九月一日로三十日까지一個月間原價에서各壹圓式을減하고提供하오니此實一擧兩得이오니陸續來臨하소서 但地方注文은九月三十一日郵便日附를檢하야施行함 先金注文에는郵料를不要하고附屬品一式進呈 商品目錄은即時無代進呈

京城鍾路中央靑年會館內

靑年洋靴店 主 柳慶烈 電話三七九番 振替京城七七九〇番

歐洲時事

愛統領의重大回答

一日夜 데밸레라 氏는 英首相 로이드쪼지 氏에게 回答을 送하얏는데 右回答은 其全權委員을 任命하야 協議를 實行할事를 提議함이라고 解하는바 右는 正式으로 講和會議를 開催코자 하는 意味가 有한 者이라더라(倫敦二日發)

愛蘭大統領 데, 밸레라 氏는 七月二十日의 英政府提議를 再次拒絶하고 어대까지던지 被統治者의 同意를 得한 政治를 唯一基礎로 하기를 主張하야 若不然하면 右交涉에 派遣할 全權使節을 任命치 아니한다 하얏더라(倫敦二日發)

英閣議開催善後協議 =英首相 로이드·쪼지 氏는 一日夜 同氏가 蘇格蘭 게아록크에서 受領한 신펜黨議會로부터의 回答을 閣員一同에게 回覽케 하기 爲하야 倫敦에 送하얏는데 同回答의 內容에는 非常히 重大한 事件이 有함으로 로이드·쪼지 氏는 七日 「인버네스」町會議事堂에서 閣議를 開할터인데 當日에 英國皇帝는 「인버네스」附近의 「모인·홀」에 滯在할지라 首相은 同地에서 皇帝에게 謁見할터이라더라(倫敦二日發)

英愛爭鬪復激烈

「벨파스트」警察署管下에 小火가 數十處에 起하야 紛爭擾亂이 依然하야 死者 十三名 負傷者 五十四名을 生하얏더라(「벨파스트」一日發)

印度族商議拒絶

印度의 「모부라」族은 騷亂의 中心地인 「킬난가지」에 大會를 開하고 武器全部의 引渡를 條件으로 하야 官憲과 商議함을 拒絶하얏더라(倫敦二日發)

獨復辟運動前兆

更히 示威運動이 起할 憂가 有하야 警察은 復辟派의 諸新聞에 對하야 發行停止를 命하얏는데 首相 에르쓰베르게르 博士의 暗殺을 企圖하는 者가 多하야 嚴重警戒中이더라(伯林三十日發)

前獨皇帝脫出說

前獨逸皇帝는 幽居를 脫出하야 飛行機로 獨逸에 入하얏다는 報가 有하나 但確實치는 아니하더라(倫敦三日發)

獨逸政界의不安

엘츠벨겔暗殺에關하야 全獨逸勞働者同盟開始

英國新聞을 依한즉 「엘츠벨겔」暗殺事件에 關하야 廿五日 全獨逸勞働組合同盟을 始하야 其他重要勞働組合의 代表者는 宰相 「에벨트」 氏를 訪問하고 同暗殺事件에 因하야 遂然히 闡明된 危險한 政情의 眞相을 指摘하고 勞働者間에 湧起한 甚大한 不安을 說明한 後

(一)昨年三月 「캅」政變以來로 共和制度에 關한 施政이 實現되지 아니한 故로 反動派는 益々勢力을 加함에 至한 事

(二)右黨側의 叛逆的行爲에 對하야는 司法機關은 全然 此를 罪라 하지 아니하거나 又는 極히 輕微한 懲罰을 加함에 不過한 事

(三)共和民主的政治家를 暗殺한 者가 前有한 事

(四)故로 勞働組合代表者는 政府에 對하야

(가)嚴重히 右除去를 實行할 事

(나)「바바리아」中部獨逸及東方의 戒嚴狀態撤廢

(다)國防軍의 反共和的運動參加禁止

(라)政治的殺人及其煽動取締

(마)民主的共和制에 關한 施政을 實行할 事

等各項을 建議要請하는 旨를 述하고 又數百萬의 勞働者及官吏는 民主共和의 維持를 爲하야 政府를 援助함을 附言한바 宰相은 此에 對하야

(一)政府는 右의 點에 關하야 勞働組合과 意見을 同히 할 事

(二)從하야 所要의 命令을 發할 事

(三)以上(나)項에 對하야는 司法官憲과 交涉할터이며 又司法問題는 不遠將來에 立法할 旨를 答하얏더라 又多數派社會黨과 獨立社會黨은 合同하야 八月三十一日에 示威運動을 行할터인데 民主黨은 民主共和國憲法維持를 切言하고 共產黨勞働組合은 反動을 除去하라는 意味의 宣言을 發하얏더라(東京電)

「엘」氏暗殺犯逮捕

二名의 少尉候補生이 「엘츠벨겔」氏暗殺의 嫌疑者로 逮捕되얏더라(伯林三十日發)

米墺條約批准

某所着電=九月二日 墺國議會는 滿場一致로써 八月二十四日에 調印한 米墺平和條約을 批准하얏는데 八月二十九日 「부다페스트」에서 匈牙利外務大臣 「한피」氏와 米國全權間에 調印되얏더라 右는 「포터」「낙스」決議案을 基礎로 한 者인데 大體로 米獨條約과 同樣의 內容을 有한 者이더라(東京電)

佛償金協定拒絶

佛國政府는 聯合國財政專門家間에 成立된 協定承認을 拒絶하얏는데 此는 協定에 依한즉 佛國은 獨逸의 第一回支拂(賠償金으로부터) 一厘도 分配를 受치 못하게 됨에 因함이더라(巴里電)

聯盟會委員增加

「실」問題를愼重審議키爲하야

「커비바」來電에 依한즉 國際聯盟理事會議長의 席에 就한 石井子는 上部실레시아問題를 全部再히 愼重審議키 爲하야 從來의 最高會議에 參加치 아니한 日, 伯, 中, 西班牙 四個國委員을 副委員으로 任命할事를 討議하야 「뗄포아」(英)「뿌지오아」(佛) 兩氏는 熱心으로 石井子의 主張을 賛成하야 滿場一致로 可決되얏더라(倫敦二日發)

日本과列國

四國協調希望

加奈陀首相 메이겐 氏는 日英同盟보다는 寧히 廣汎한 日英米中四國協調를 希望한다 云하얏다더라(路透電)

無電案最近交涉

「얍」島問題中 米國의 要求에 係한 無線電信設置의 件에 就하야는 國務卿 「휴쓰」氏와 幣原大使間의 最近會見으로 米國은 單히 右設置權만에 止하고 設置는 行치 아니할 旨를 提示한 旨가 外務省에 入電되얏더라(東京電)

米洲事情

全米鐵道盟休乎

米國에 全國的鐵道從業員의 同盟罷業이 起하려 하는데 此는 聯邦政府의 規定에 依하야 賃銀을 多少減少함과 三個의 勞働同盟會가 蹶起함에 因함인데 從業員은 一般投票를 行하는 中인바 彼等大多數는 同盟罷業에 加擔한다 傳하더라(桑港三十日發)

炭坑夫騷擾勃發

加州土地法實施의 結果 在留日本人은 全然困境에 陷하야 進退가 維谷하게 되야 結局日本人側으로부터 私訴를 提起하얏더라(桑港電)

土地法實施結果

「웨스트·버지니아」에는 武裝한 多數炭坑夫의 騷擾가 勃發되야 同地官憲은 急히 華盛頓政府에 報하고 軍隊派遣을 求하얏더라(紐育電)

對獨條約批准案

大統領 하딩 氏는 對獨講和條約을 直히 上院에 送하야 九月二十一日에 議會를 召集코 共히 敎書를 發하야 右條約의 批准을 要請하리라더라(華盛頓三十日發)

油田問題

協定成立

間의 會見에 依하야 協定이 成立되얏는데 大統領 오브레곤 氏는 아직 署名치 아니하얏고 米人側은 協定에 滿足하더라(멕시코)

同別報=油田에 關한 墨西哥의 決定이 若所報와 如히 되면 米國은 同國人의 權利를 保護하리라 信하야 墨國政府를 承認하리라 解하더라(華盛頓三十日發)

大審院은 墨西哥憲法中의 油田에 關한 條項은 既往에 溯치 아니할 事를 宣言하얏더라(멕시코三十日發)

米國石油業의 代表와 墨西哥藏相(華盛頓三十日發)

露國關係

反過派運動暴露

過激派 「카데푸도」(黨首主幹)으로 하야 他의 非過激派分子로써 組織된 聯合救濟委員會(饑饉에 對한)는 六月二十五日 勞農政府로부터 解散命令을 受하얏는데 其理由는 本會가 救濟를 利用하야 政治運動을 起코자 하야 巴里其他在外同志와 連絡하야 宣傳을 開始한 事가 暴露됨이라더라(哈爾賓三十日發)

過激派軍隊集中

芬蘭에對한開戰準備乎

倫敦 「타임스」헬싱포스特派員의 報道에 依한즉 露國勞農政府는 페트로그라드方面에 續々히 軍隊를 集中하는 中인데 右는 近々 芬蘭과 戰鬪를 開始할 準備이라 傳하더라 그런데 芬蘭,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及 波蘭이 平和條約破棄에 關하야 强硬한 抗議를 勞農政府에 提出하얏슴으로 同政府는 頗히 驚愕한지라 右諸國의 抗議를 懸念하는 中에 在한 莫斯科政府는 先着手의 逆襲을 取코자 하는 用意인듯 하더라(倫敦二日發)

中國情勢

兩湖軍停戰締結

趙, 吳兩氏會見의結果

湖南軍總司令官 趙恒惕 氏는 一日午後三時 岳州에 來하야 吳佩孚 氏와 會見하고 暫時停戰辦法九個條를 締結하얏는데 其內容은 次와 如하더라(上海三日發)

一、沈鴻英의 廣西軍을 卽日 湖南으로부터 退去케 할 事

二、湖南에 侵入한 江西軍은 江西老關에 退駐케 하고 湖南軍은 醴陵에 駐屯할 事

三、石首, 公安方面의 湖南軍은 撤退하고 直隸軍은 此를 進擊함을 得치 못할 事

四、平江(湖南)通城(湖北)方面의 湖南軍은 龍陽에 駐屯하고 湖北軍은 通城에 駐屯할 事

五、湖南中央軍은 三日 湘陰, 白水一帶로 退할 事

六、湖北軍으로 直隸軍의 防禦線內에 在한 者는 其通過를 許할 事

七、長沙, 岳州, 萍鄕間의 鐵道及水上交通은 恢復할 事

八、命令을 受한 後 各防禦地에서 作戰行動을 取치 못할 事

九、尙히 確定辦法을 定하야 最後의 休戰을 實行할 事

四川軍宜昌包圍

四川軍은 宜昌을 包圍攻擊하야 激戰中인바 外交團은 中立地帶를 設置하고 警戒中이더라(漢口四日發)

上海에聯省會議

上海에 開하는 全國會議問題에 對하야 協議하고자 廣東政府及陳炯明氏를 代表하야 王寵惠 氏는 上海에 向하얏는데 陳氏의 各省代表者會議贊成의 通電은 廣東政府와 妥協을 了한 後에 發한바 聯省自治主義를 標榜하는 廣東政府는 盧永祥 氏의 主張에 贊成함은 勿論일지라 然이나 盧氏는 聯省政府의 中心을 廣東에 置코자 함을 反對한즉 同會議는 成否가 尙히 疑問이라 觀하더라(廣東五日發)

廬山會議

二日夜 漢口發 廬山會議의 通電은 吳佩孚, 趙恒惕 兩氏가 岳州에서 會見하고 停戰條約을 締結함과 同時 趙氏가 廬山會議에 贊成한 故로 連名으로 通電하게 되야 張紹曾氏는 右注文을 携하고 漢口에 歸하야 發送한 것인데 通電의 名議를 漢口各團聯合會로 함은 吳氏一人의 行動이라 認함을 避하고자 함이며 同會議開會에 對하야는 旣히 東三省을 除한 北方各省의 同意를 得하야 來十日 江西省 廬山에서 開會함에 至하리라더라 然이나 北京政府의 此에 對한 態度는 冷淡한 中 右는 吳氏의 本意가 아니오 主로 張紹曾等의 態度에 依한 者인데 恐컨대 實現되지 못하리라 觀測되더라(上海四日發)

空中輸送實施

海軍은 橫須賀航空隊로부터 東京飛行場에 送하는 文書를 輸送코자 近々定期空中輸送을 實施하기로 決定하얏더라(東京電)

臨時公債發行

政府는 今回 臨時事件公債로 因하야 五千萬圓의 國庫債券(五年利附)을 發行하기로 決하야 六日의 官報로 左와 如히 公布하얏더라

▲賣出價格 九十五圓(百圓에 對하야)

▲發行總額 五千萬圓

▲額面種類 廿五圓 五十圓 百圓 五百圓 一千圓 五千圓 一萬圓의 七種

▲償還期限 大正十五年九月一日外지

▲利率 年五步

▲應募申込所 日本銀行本店支店代理店派出所及全國各郵便局所

▲應募開始日 九月十五日

▲終了期 同十七日

▲同募入決定 同二十五日

▲利廻 六步三厘强

又大正十一二年度에 對한 募債額은 事業費一億五千萬圓 朝鮮事業公債八百五十萬圓 鐵道公債六千萬圓이더라(東京電)

阿片公判其後

一回公判終了 中野等保釋

阿片事件公判은 四日 土屋裁判長의 審問에 基하야 各被告에 對한 大體의 審問을 了하고 所謂 阿片事件의 大體의 審問을 了하얏는바 檢察官의 被告에 對한 威嚇的陳述에 對하야 龜山辯護士等은 檢察官의 態度가 苛酷하다 하야 關係辯護士等은 檢事의 主張에 對하야 各被告의 公判廷에서 行한 陳述에 矛盾이 有하다는 點에 依하야 各被告의 起訴에 如斯히 不良한 [illegible] 被告의 近親者等은 保釋을 希望하는 者가 前日에 不下하얏고 公判은 十時三十分에 開廷하야 此에 先하야 中野, 山島, 梶非, 小原의 四名에게 保釋出獄을 許하고 其他被告와 辯護士間에 問答을 始하야 米岡, 龜山兩辯護士와 中野, 小島間에 二三應答이 有한 後 十時四十五分부터 證據調査를 始하야 中野以下 各被告가 證人調査를 請求하얏스나 土屋裁判長은 豫審決定書를 讀하고 被告에 對하야 辯明을 求하얏는데 小島以下 各被告는 皆豫審調書가 事實과 不同한 點을 指摘하고 午前十一時三十分에 閉廷하얏더라

日本兩選敗績

其後熊谷, 淸水兩選手가 共히 敗하야 當牌는 再次 米國選手의 手에 歸하얏더라

大連會議否認

海港政府對日本通牒

海參威政府는 大連會議에 關하야 在東京 「콤펜스키」大使로써 日本政府에 覺書를 交付케 하야 曰 「日本은 智多政府와 大連會議를 開催케 하얏스나 全極東住民의 名에 依한 沿黑龍州臨時政府는 此에 反對하야 日本과 智多間에 締結한 經濟其他一切의 條約을 認치 아니한다」 云하얏다더라(海參威四日發)

大連會議

結果如何

大連會議는 智多政府全權委員의 提議에 依하야 六日 開會하기로 延期하얏는데 同會議는 成功을 見하리라 豫想하더라(大連電)

府稅分配調査

九日協議員會를開하고

京城府에서는 今年度의 府稅分配額을 各其所得에 依하야 調査中이든바 昨今에 其査定이 完了하얏슴으로 來九日午後二時부터 府協議員會를 開하고 査定案을 協議決定할터이며 協議가 終한 後에는 卽時 第一期分의 納入告知書를 發送하야 今月內로 徵收할터이라더라

定年退職判事

能者發布한 朝鮮司法及定年制 大正十年八月制令第十二號 第二十六條의 六及同附則第二項에 依하야 去九月四日附로 退職된 判事는 左와 如하더라

光山地方法院長興支廳判事 栗原 忠恕

咸興地方法院城津支廳判事 士居 侃夫

京城地方法院原州支廳判事 笠原 良保

貸出金利强硬

引上實行乎

財界는 最近에 至하야 漸次 [illegible] 資金의 需要가 旺盛함에 [illegible] 京城組合銀行 [illegible] 貸出은 四百三十萬圓의 增加를 示하고 [illegible] 近々二回의 貸出利上을 斷行하리라더라

朝鮮產牛皮

檢查成績不良

最近朝鮮에서 移出하는 朝鮮牛皮에 對하야 大阪日本皮革會社의 檢查에 依하면 左記와 如히 其成績이 不良한데 刀痕이 有한 者가 全數七割以上에 達하는바 朝鮮牛皮는 改良을 獎勵하야 漸次市價를 高케 하는 際에 如斯히 不良한 成績을 示함은 遺憾이라 할지며 自今으로 一層剝皮刀를 使用하야 刀痕을 少케 함을 注意함이 必要하다는데 其檢查成績은 左와 如하더라

種別	產地	檢查數	合格枚數
在來皮	京畿江原道	一五五	八六
在來皮	南鮮一帶	一六六	六四
改良皮	京畿江原平南北道	一三六	四一
改良皮	南鮮一帶	一八六	二五
計		[illegible]	[illegible]

總督南鮮巡視

天候其他關係로 久히 延期되얏든 齋藤總督의 忠淸南北道巡視는 今回 漸次 決定되얏는데 [illegible] 六日間의 豫定이라더라

新設公立普通學校

左記公立普通學校新設의 件은 其間 關係로부터 認可를 申請中이더니 今般에 認可되얏더라

▲咸南北靑郡下 [illegible]洞

鮮銀支配人異動

朝鮮銀行에서는 九月五日附로 左와 如히 支配人의 異動이 有하얏더라

哈爾賓支店支配人 久保田積藏 營業部支配人兼總務部長心得을 命함

平壤支店支配人 大原 胤夫 營業部支配人을 命함

檢查役 淺見與四藏 上海支店支配人을 命함

上海支店支配人 松木萬三介 奉天出張所支配人을 命함

靑島支店支配人 [illegible] 上海支店支配人을 命함

奉天出張所支配人 高橋 武夫 靑島支店支配人을 命함

神戶出張所支配人 木原 小平 總務部副支配人을 命함

外國部副支配人 山下 秀隆 神戶出張所支配人을 命함

吉田理事의 總務部長委囑도 九月五日付로 解하고 木原神戶出張所支配人은 病氣靜養의 必要上 一時總務部附에 被命되고 淵木設行課長代理及山崎檢查役은 九月五日付로 辭職하얏더라

都市計劃과

工業資源涵養

齋藤音作氏談

▲京城市는 朝鮮에서 各般의 中心地일 뿐 아니라 又將來 大陸發展의 大策源地가 되지 아니치 못할지로다 吾人은 今日의 京城市를 撫育하야 此를 大京城을 作치 아니치 못할지라 京城은 確實히 大都가 될 天惠를 所有하얏도다

▲京城은 朝鮮의 政治及其他諸般의 中心地이라 此는 現在뿐 아니라 將來에도 亦然하다 信하노라 그런데 京城의 難點은 水의 良港을 隣接하얏도다 今日의 漢江은 野趣性이 富하도다 그러나 此를 訓練하야 溫柔한 朝鮮牛와 如히 함은 困難한 事이 아니라 今日의 仁川港은 大艦巨舶을 入하기에 不適하도다 然이나 漢江을 治水하야 流沙가 減하게 되야 浚渫築港을 하게 되면 此로써 良港을 作케 하기에 不足치 아니하도다

▲京城은 又氣候風土에 比較的 中和를 得하얏도다 治山事業이 進展하고 文明의 施設이 整備하면 世界大都市의 中에는 健康都市로 可히 數할지로다 京城은 又地勢上 山河의 風致에 卓越한 素質을 有하얏스니 近郊에는 將來의 森林公園이 될 光陵森林及峨々한 北漢山이 有하고 更히 國家的大公園이 될만한 南山의 經營地를 控하고 又元山의 向岸의 雞籠地가 有하얏도다

▲然이나 京城은 이것으로는 大京城이 되기는 不能하도다 百萬二百萬의 人口를 有한 大都市되기는 不能하도다 將來 京城으로써 眞實한 大京城으로 하고 大都市를 作하랴 하면 非但 政治其他의 中心地될 뿐 아니라 更進하야 京城市로 하야금 大商工業地를 作함이 必要하도다 그러나 大商業은 大工

實銀新築基地

實業銀行에서는 行舍가 狹隘하야 新築移轉하기로 基地選定中이든바 南大門通과 長谷川町角의 鮮銀向側인 朝鮮民報社, 備前屋旅館, 鶴岡溫泉, 土佐紙倉庫等을 合한 總坪百七十坪의 基地를 買收하야 目下 行舍設計中이라는데 地下室을 合하야 四層이요 建坪은 百坪의 建築으로 內定하얏다더라

辭令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小川 健治

任朝鮮總督府判事(七等) 補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判事

朝鮮總督府判事 栗原 忠恕

同 士居 侃夫

四級俸下賜

同 笠原 良保

九級俸下賜

朝鮮總督府技師 天岸 敏介

醫師試驗委員을 命함

人事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商況

[illegible]

大阪三品

六日前場

[illegible]

京株賣買高

[illegible]

株式市場

京取金融難

六日前場又暴落

[illegible]

京株賣買價(六日)

[illegible]

信託資金難

[illegible]

京株步調

[illegible]

短期取引

[illegible]

大阪期米

六日前場

[illegible]

仁川大豆

九月五日後場(亦不成)

[illegible]

九月六日前場

(當限賣買)

[illegible]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介李孝健

客仲買店

ClibPDF - www.fastio.com

深夜에 突然銃聲

의주형사의총마진상보

평북경찰부형사 박○○(平北警察部刑事朴○○)은 지나간사일 상오렬시반경에 의주군 의주면 동외동(義州郡義州面東外洞)에서 중국옷입은 독립단 한명의게 총을마젓다함은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그당시의 광경을 알아보건대 박형사는 그전날초커녁에 청버려인숙(旅人宿) 몃곳을검사한후 의주장터를 순찰하고 엇던친고의집을 다니어서 또다시 동부동최희순(東部洞崔熙淳)의집에가서 바둑을두다가 권긔 령시반경 에 여러사람과 가치헤여지어 최씨집을나와 동밧게(東外) 거리에서 엇더한사람이 자남을보고 그사람에게거주와성명을 무른즉 그사람은그근방에 잇다함으로 박형사는그사람이 커의집에까지 가는것을보기위하야 따라갓다가 그사람이커의집으로 드러감을보고 마음을놋코 컨리동외동(東外洞)을지나는대 으슥한곳에서 난대업는 중국옷입은 한사람이서잇슴으로 박형사는엇더한 자인지 수상함으로 누구냐고 무른즉그자는 오좀을누는체하다가 누구냐하는말을듯고 중국말로「서마」(甚麽) 「이말은무엇이냐하는말」라고하면서가젓던권총으로박형사를쏘앗다박형사는총소리나는동시그자리에업더지며그자는어대로갓는지자최를감초앗는대박형사는자혜의원(慈惠醫院)에입원을식히고 치료중인바 박형사는왼편팔이마젓스며 써에는 아모관계가업고 의사의말을드른즉 한삼주일이나 걸니겟다하며 그의쏜탄환을검사한즉「뿔ㅡ三」식권총의 탄환인듯하다하며 당국에서는 의주성내청외와 및부근촌락에 비상선을치고 혹은가택수색과획인을 검사하야 범인을데포코자함으로 일반인심은 매우소란하다더라(의주)

逮捕된二名의靑年

구월산을수색하든끗헤잡혀

지난달 이십구일에 황해도장연(長淵)송화(松禾)장연(長連)세경찰서의 경찰대가 은률군구월산방면(殷栗郡九月山方面)에서 대활동을개시하얏다함은 이미 보도한바거니와 그경찰대는 사방으로 수색하얏스나 독립단의왓는곳을 발견치못하고 삼십일에 각々헤여지고 장련경찰서원으로 조직된 경찰대만 계속수색 중이던바 독립단 이명(二名)이 은률면풍산리김모(殷栗面楓山里金某)의집에서자고갓단말을듯고 즉시 검모를잡아취조한후 그근처의 산림을수식하기 시작하야 사방으로 수식하다가 지난일々 오후네시경에 은률읍(殷栗邑)압수풀 가운대에 숨어잇는형적을알고 경찰대는 그수풀을에워싸고 일케히사격을하매 독립단도 응전하야 한참동안커항하다가 독립단이명은 마참내 다데포되얏는대 그두명은 은률군 은률면홍문리김탄삼(殷栗郡殷栗面紅門里金明炎)과 송화군운류면창리리창실(松禾郡雲遊面倉里李昌[illegible]

激甚하여진 電車事故

탈선아니면충돌

재작오일 오후두시 사십분경에 마포 (麻浦)뎐차종뎜 부근에서 마포를 출발하야 의주(義州)통으로가는 뎐차데팔십칠호「운뎐수일빅사호 차장팔십삼호」가별안간에 탈선이되야 동다섯시경에야 겨우운뎐을하게 되얏는대 다힝히승긱에는 이상이 업엇스며 그날오후렵시 삼십분경에 룡산을출발하야 경성으로 오는 뎐차데일빅삼십호「운뎐수오십오호 차장오십이호」가 룡산병긔지창 (兵器支廠)압을 진힝하는케음에 한강통(漢江通) 쿡번디 조우감일 (鳥羽勘一)의집에서 고용하는 김평선 (金平仙)

(ㄹ)이 실고가는뷔인병을 실은 화차와충돌을하야 더힘히 사람은 상치아니하얏스나 실고가든 병이케아커서 손해가 약십원가량이라더라

日本水兵이 米人을 刺殺

원인은미국인이 일본수병을모욕

미국상항 엇더한상점에잇는 미국인「키ㅡ톤」라는자는상해에다 맛든「펠시아환」이란배우에서일본인수부(水夫)에게 식칼에 마져죽엇는데 그일이 이러나는동시에 그배에서밥짓는일본 석천현(石川縣)출신 퇴촌종태랑(退村宗太郎)이가급히 은신하얏슴으로 범인의혐의자가 되엿다는대 이사건에대하야 그배에서로리하는녀자 아십오명을 상항경찰서로 호출취조중인바 피살된 원인은「키ㅡ톤」가 일본수부를 욕한까닭이라더라 (상항오일뎐보)

鍾路公市의 大問題

일본상인들이헛가가를짓고 마음대로세금을바더먹은일

종로공설시장(鍾路公設市場)에서는 그시장에 서뎐을내이고잇는일본상인 오륙명이 소위진지회(堅志會)라는회를 조직하야차시장압헤잇는 뷔인땅에 합쳐차양으로 헛가가를짓고 임의로가가세금을바더 자긔들이 난우어먹는다고

공셜시장 일반상인들이 매우방해가된다고 공론이 만하잇스며 경성부(京城府)에서도 그내용을알고 방금 그헛가가를치우라고 명령을하얏다는데 이에그자세한 내용을듯은즉 여름동안에 참외가만히매매되기 시작하야 참외바리들이 매일아츰마다 빅여바리 혹은 칠팔십바리가들어와서 자연히 시장안에부인힘을 사용하게되얏는바 계속하야 실과의매매가 만히잇슴으로 시장어구에 실과장사들이 잠거히 혹은삿자리쪽으로 차일을하고 그밋헤서실과를팔어 상당히 홍청이엇슴으로 림시로 실과를팔든사람도 그커々를 영원히 차용하고

실과장사 를하얏스면 조흘듯 성각이잇는것을 긔화로하야 시장안에서 영업을하는일본사람오륙명이 서로공론을하고 그터에 갑싼합석조각과 오리목을사다가 헛가가를짓고 한달에 사십오원식의 세금을밧고 한평에 두어평식예어 실과장사에게 빌녀주고 온당치못한돈을 밧는다하야 시장안에서 영업을하는 상인들은 장안으로드러오는어구에서 사사로히 영업을하는상인의 헛가가々 잇는싸닭에 영업상에 큰방해가 될뿐아니라 당초공설부에서공설시장을설치하고 뎜세를도밧지아니하고 그대신공설시장에서뎜을내이는상인들은

물건갑을 얼마간 다른시장에서 매々하는것보다 싸게팔나는 조건아리에서 영업을하는터인데 시장어구에 헛가가를짓고 사사상인들이 뎜을버리어서 시장으로 드러오는고긱을 가로따가며 또부령에서 경영하는관유의시장디면을 몃사람의 일본상인이 임의로세금을 밧는것은 온당치아니하다고공론이자자하다더라

門司에서 爆彈發見

폭탄두개발견 경찰은대활동

문사서(門司署)에서는 문사시보련관련정속에서 폭발탄 두개와 핑업에쓰는 뢰관(雷管)수십쳐을 발견하엿는데이것은 배일조선인의 소위가안인가하야 즉시대활동을 개시하엿다더라(문사뎐보)

池中에 嬰兒屍體

파부의추힝으로 갓난애를죽이어

달성군해안면 방촌동 송뎐방길(達城郡解顔面芳村洞松田房吉)의집압헤잇는 련못속에 갓난어린아희시톄가 잇는것을 그동내에사는 일본아희가보고 소관경찰주재소에 가서발 하얏슴으로 주재소로부터 대구 경찰서에보고하얏는데 그급보를 접한대구서에서는 출장하야 조사한결과그동리 오빅륙십일번디 류청대모 최분이(柳成大母 崔分伊)(ㅌ)라는녀자의소위인것이판명되야인하야 검거하고 자세한조사를한즉 최분이는 이십사셰에 상부를한측 최분이는 이십사셰에 파부살님을하여오던바 지금으로부터 삼년전부터 해안면 둔산동팔빅구십오번디 박해성(解顔面屯山洞八九五朴海成)(ㅍㅍ)과 남모르게 관계가잇섯던 터인대 작년십일월경에 아희를배여지난 팔월에만삭임으로 동월이십일일 오컨에 나어서 이일을 남이알가두려워하야 아해의목을졸나죽여 가지고 못에갓다가 내여버린일이라더라 (대구)

四萬三千圓의 大訴訟

수형관계로 피소된한진달

시내황금뎡 이뎡목 칠십륙번디굴지내죽십랑(黃金町二丁目之內竹十郎)은 시내관렬동빅사십칠번디한진달(貫鐵洞韓鎭達)을거더서약속수형 사만삼컨원의 지불을청구하얏는데 내용은 작년십일월이린로 신민사오종섭(新民社吳宗燮)와 수형의손을거치어륵칠회나 넘어온 약속수형을갑지아니 한것이라더라

李王職 國分次官逝去

연회에갓다와서 작조에돌연서거

리왕직차관 국분상태랑(李王職次官國分象太郞)씨는 재작오일오후일곱시반에 조선(호텔)에서모씨의 결혼피로연 ㅌ히는회석에 참예하얏다가 술을두어잔먹은후에 별안간에 긔운이조치못하다하야 별방으로가서 잇는중 병세가점々중하야 두어번토사를하며 매우 위독하야집으로 모히어든 여러사람들은 크게놀내어 극력으로 응급치료를하얏스나조금도 효험이업스며 병명은장천공(腸穿孔)이라는바 현장에서 위독에싸아진몸을 겨우명치뎡(明治町) 관사로 운반하얏스나 작일오컨 열한시경에 치료의 효험이업시 드대여 사망하얏는대 아직여러가지의 관계로인하야 발상은 아니하얏다더라

大戰爭後의 廢物利用新法

병긔와탄환으로 농장에거름까지

넷날에는 권정이 그친뒤에병장긔로보십을 만든다는 말과가치구라파권정이 평화된뒤에 독일에서버리엿던 병긔와 탄환을쳐치하기가 큰문데가 되엿다 독일에서는 일빅사십가지의 탄환을 버리고 지금불란서 각디에는 련노한탄환이 삼십오만톤 이나되는대 소용업는물건이 된듯하엿지마는 영국뎐긔기수「피킷」씨가이쓸데업는 탄환을 사기로발론하야「인벌롤트」창이이천만원을주고 이것을사서 탄환는늑이어내인지가 일년동안인대 발서탄환에서 십만톤의 강털을어덧고그강텰로는 일용상에 유익한물품을 제조하며 탄환속에쏙 발청질을 가진화학초산염(硝酸鹽)은 쏘내여 여러해 농말에패인농장을 다시닥고그곳에 거름으로쓴다한다 아조소용업는 부분만래여바리고 그외는다시 긴하게쓴다는데 폐물이용이라는 말이이것을 가르친것이다 사진는여섯치되는 탄환에구멍을 뚤코불로 그속에회약을씨는 광경인대일분동안에 넉々히한개를씨서버린다하더라

警察部自働車가

녀자한명을치어

황해도 경찰부자동차가 지난사일상오십일시경에 해주면 남문외(海州面南門外)큰길로진행하든중에 싱선을팔너 다니는녀자를치어서 그녀자는중상을 당하얏슴으로 곳구세원(救世院)에 입원케하야 응급수당을 하얏다더라 (해주)

詐欺가 橫領으로

죄명은변하얏스나 징역은여시일년반

충청남도 당진군순성면 중방리 사빅사십삼번디 손규동(忠南唐津郡順城面中方里孫奎東)(ㅁ一)는오년전에 충청남도 아산군탕정면권곡리 (忠南牙山郡湯井面權谷里)풍긔리(豐基里) 등디에 잇는전답 오만여평을 동도련안군련안면읍내리 리용악(天安郡天安面邑內里李容岳)에게 가격일만원에 매각하얏스나

토디대장 에 이동이되지 아니한것을 다힝히텨이어 타인에게이어 돈을편취하고자 재작년일월십칠일에 종로통 삼뎡목 이십오번디 리용흡(鍾路通李容洽)에게파라먹은형을 사라고속이어 대금명목으로 돈빈만일컨오빅원을 밧아먹엇슴으로 경성디방법원에서 사긔취재 죄로 징역 일년륙개월의판결을 밧은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얏는데 재작일 오컨열시에 길뎐재판장(吉田裁判長)의 손으로 당々하게 컨판결을 취소하고

판결문을 읽음으로 방령하는사람은 형벌이 경하야지는가하얏더니 다시 일년륙개월에 처한다는판결인대 리유는 자긔가양을파라먹엇스되 소유권이 이컨되지 아니하얏스니가 또파라먹은것이 사긔취재는 아니지마는 커번에산사람에게는 돈만원밧은것을 소유권 이컨도아니하고 동부터손것은 횡령이라고하야 전판결을취소하고 횡령으로 빌년징개월에된것이라한다 사긔죄이던지 횡령죄이든지 일만원공돈먹고 일년징개월 징역하기는 일반인데 결국미결구류일수만 늘엇다하겟더라

逮捕된 崇仁洞强盜

공범자는방면될듯

지난달 이십오일새벽에 시내숭인동이십번디최재원(崇仁洞崔在元)의집에 식칼을가지고드러갓든강도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지정리 리문여(忠南洪城郡龜項面支井里李文汝)(ㅁ五)는 그동안서대문 경찰서에서 취조하다가작일 검사국으로넘기엇는데 그자는

십년징역 을 복역한컨과자로서 그날밤에 주인최재원에게 칼가지맛고나와서도 조금도 회개하지아니하고 최재원의집에서 피흐르는등은 그대로가지고나와서 고양군 숭인면돈암리 삼빅삼십번디 강재영(高陽郡崇仁面敦岩里姜在永)의집에서 인동포고의한벌과집신한커레를훔친것을위시하야그날밤이새이도록 여섯곳에 침입하야 여러가지물건을 훔친데당한자이며 리문여가 데포되든당시에 공범의 혐의자로 데포된 전라남도보성군봉린면에 원적을두고 현재여도라다니는 김상수(全南寶城郡逢萊面 現在住所不足 金相洙)(三)는증거불충분으로면소될듯하다더라

停車場에서 列車內로

장사터를옮기여

부산역의좀도적 달포컨부터 부산뎡거장안에서 려긱이만히드나드는틈을타서교모하게 려긱의회중물품이나 휴대하는귀중품을 컨취하는자가 잇다 뎡거장압과출소에 유실신고를하는 사람이하로에도 이삼건식되엿슴으로 파출소순사는 뎡거장안을단속하는경수(警手)와 협력하야

범인수색 에착수한 결과 지난달 십팔일 뎡거장대합실에서 엇더한자가 련도질하는것을 당장에서 데포취조한즉 그자는 충청남도론산군론산면출생 전과삼범의 리원찬(忠南論山郡論山面出生 前科三犯 李元瓚)(ㅁ三)이란자인대 다른동류이삼명과 공모하고 항상 긔차가닷는배와 떠나는배에 승긱의 혼잡한틈을타서 항상 스리도적질을 하든자인것이 판명되엿슴으로 아즉도련두사람을 검거하기에 노력중인데 리원찬이가경찰의손에데포된것을드른 전라남도출신 김창호(全南出身金昌浩)경성출신 리봉만(李奉萬)등 두명의동류는 어대로도주하야 버리엇슴으로 그후로는 정거장의 스리도적는 업서졋스나 차안에서 스리도적이 늘엇슴으로 경찰당국자들은 전긔도주한자들의 소재나 안인가하고 경계중이라더라 (부산)

苦學生宿舍를 짓기위하야

장차긔부금모집

고학싱갈돕회의합숙사(合宿舍)를짓기위하야 윤치호(尹致昊)씨외몃명의명의로 긔부금 오만원을 거두겟다는 청원을당국에 데출하얏다는말은 당시에임의 보도하얏거니와 그허가가 입의나왓슴으로 이제부터 긔부금모집에착수하리라더라

鍾路署의 大活動

모방면에서온모모등데포 작일은오상근씨까지추조

근리종로 근처에○○문서를 배부하엿느니 ○○에서 ○○선면원이 침입하엿느니하야 풍설이자々하며 또는검거된 사람도 적지아니한 모양인데 작일아참에 조선청년련합회장(朝鮮靑年聯合會長)오상근(吳祥根)씨(六)자퇴에서 업중한가퇴수쇽을 당하엿스며 다시종로 고등계에 인치되야 엄밀히 취조를밧고 나왓다는데 긔자에게 오상근씨는나는아참 아홉시부터 새로한시반가지 취조를 당하엿소이다 요즘상해에서온 누구를 맛나보지못 하엿느냐? ○○문서가네집에 오지아니 하엿드냐 요즘시국에 대하야 엇더한감상이잇느냐?하고 여러가지로 무러더이다 그러나 아모일업는사람이니싸 나중은 이후근신하야 집히주의하라고 말하더이다 하고 말하더라

學校設立을 爲하야

송파단배를단하

충청남도 청양군대치면 구치리 (忠南靑陽郡大峙面九峙里)에서는 진흥회(振興會)를 조직하야 여러가지로 사회를위하야 활동하든바 요새이에는 디방에 향학렬이 일칭격렬함을쫏차 미처면내에도 소학교(小學校)를 설립치아니치 못하겟다는 싱각으로 일제히단주단연을하야 근간이나 긔본금을모양이라더라

洋靴千部를 強請

훈춘현지사에게마적이 경원에는피난민이륙십여명

사일오후에 마적사빅명이 훈춘(琿春)의서북편략삼십리되는곳 관문자(關門子)에모히어 마적두목구룡산(九龍山)왕덕산(王德山)두명은훈춘현 지사(知事)와 그곳단장(團長)에게다수한금회와구두일천켤네를 요구하얏슴으로 중국편에서는 양단장(楊團長)의거나린 이개중대가출동하야경계하고 한편으로파병(派兵)오십명을통의하야국자가(局子街)를경계하며 일본수비대도 출동경계하는데 인심은 매우불안하며 그곳에거류하든 일본인 사오빅명은 경원(慶源)으로피란하얏다더라 (훈춘뎐보)

兩團合同

아즉습격은아니나 인심은매우불안중

조선군사령부발표를듯건대 마적두목왕덕산(王德山)은부하삼빅명과함께 팔월삼십일일에 청구자(淸溝子)산중에와서그디바주민에게대하야 피란을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얏스며 구월이일에 마적두목구룡산(九龍山)은부하삼빅오십명과 합하야 청구자산중에서 왕덕산의방비단과 합하얏스나 훈춘의방비가너무 엄중하기배문에 엇지하지못하고거주민들은자면에참혹한일을당한일이 잇슴으로 련일이와가치 버르다가 습격을하리라고인심이평온하지못하다더라 (오일발훈춘뎐보)

危險한 東淸鐵道

마적이습격하야 금괴를강탈하여

동청텰도(東淸鐵道)연선에는자조마적의습격이잇고특히텰도종업원에대한 피해가 만키배문에 일본봉에일즉이근무하는 수일권에는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지선(支綫)으로 가고자하는 긔차가 운뎐도귀한에 일 [illegible] 의마적이 긔관차에 [illegible]

潛水艦에 火災

긔관의뎐긔가새어 진수식전에불이나

재작오일 오후사시반경에 신호천긔(神戶川崎)조선소 긔관공장(機關工場)에서 장차진수식을거힝하라든데삼십이호잠수함긔관(潛水艦機關)으로부터 불이낫는데 긔사(技師)의 업중한 방화설비(防火設備)로써 두어서 진화되엿스며 그원인은 긔관실의축뎐지(蓄電池)로부터 자연히 불이난것인데 그긔관은 다시사용할수가 업다더라 (신호뎐보)

神戶에 黑死病

보균자한명발싱

일본우선회사(郵船會社)의배금란환(錦蘭丸)에타고잇든천야은태랑(淺野銀太郎)(ㅁ五)은지나간 삼십일일에 그배가 신호(神戶)항구에 다앗슬배에병이 들엇슴으로의사의 진찰을 밧앗더니그자는흑사병(黑死病)균을가진자인듯함으로 동현위싱과 에서는 혈액을 검사하는중 이라더라 (신호뎐보)

福井氏自殺과 분々한의심

그러나신경쇠약이라고

총독부전매국경성지국서무과장 복정우환(總督府專賣局京城支局庶務課長福井友丸)(ㅁ二)씨가 지나간오일 아츰에 본뎡오뎡목 칠십구번디 자긔집에서 단도로 자살하얏다함은 임의보도 한바 이어니와 죽은원인에 대하야는 여러가지 풍설이잇스나 컨혀신경쇠약에 걸리어 쇠약한끗헤기강안에 자미스럽지 못한일이잇서 돌연히

大阪에서 大格鬪

조선인사십명이

지나간일々오컨여섯시경에대판부남구천도뎡(大阪府南區川島町)에서려관영업을하는 조선인고재송(高在松)의집에 그근처에 류숙하는 임창국(任昌局)이라는사람이와서 무슨말을 서로할써에말닷홈이되여 임창국은 고재송에게항하야 [illegible] 고재송의아우 고재언(高在彦)(ㅁ)이가 쫏차가 사십여명이 각각 편을갈라가지고 서로 싸호는 [illegible] 조선인로동자 사십여명이 [illegible] 에서경관이급히출장하야 진정식히엿스나 원시는 그근처가크게소동하얏다더라 (대판)

秋季競馬大會

이십일부터개최

경성승마구락부(京城乘馬俱樂部)에서는 추계경마회(秋季競馬會)를개최하기위하야 [illegible] 이십일부터 [illegible] (휘수면보)

絶壁이 崩落

이탈의구한집이 한거번에마못히

[illegible]

醉中에 溺死

[illegible]

列車內의 竊盜

[illegible]

自働車와 自働車의 衝突

[illegible]

京都에서도 다른

[illegible]

洋傘一個로 檢事局

[illegible]

精神에 異常

[illegible] 自働電話 [illegible]

天氣豫報

[illegible]

◇다우미표◇(降水) [illegible]

◆휴지통 ▲지난 [illegible]

趙高藥

됴 고 약

주 치

▲됴션유일▲

▲종기·헌데·부스럼 [illegible]

本舖 大一藥房

파는곳 각지방유명한약국과각상회

모기、빈대、베록기타잡충에게 물니어서상한대를곳고치지아니하면 [illegible]

金銀細工 美術品製作及 直販物商

元信商會

主務 金熙東 權性淵

換節-生涼!

靈神丸

朝鮮賣藥株式會社

부활

第六十二回 一、「쏘헤미아」왕 (六) (二卷)

우리가 병원동집을 떠나가든때가 여섯시 십오분이되엿섯다 로애련의 집압헤갓더니 일곱시십분인데 애련이는 아즉소풍나아갓다가 드러오지 아니하엿고 등불은 막켤때이엇섯다 그집은 한정하의 이야기와 가치 보이엇던 큰길가에너무 나아와잇던줄을모르고 잇섯스니 나의생각하든 그원집이 조그마한골목에 조용한 큰소이졸로 아렷던것이 다그러치안코 도리혀 번화한큰길엽헤잇섯고 그집압헤는 로동자들이만히 몰켜서々 담배도먹으며 잇섯다 한정하는 나와가치와다갓다하면서

「한가한날이요 드로혀우리에게는조흔일이요 그사진이 지금은 두곳으로 쓸수가잇스니 자긔남편이 그사진을보더라도 아니될것이아니오 더커그사진을 어듸다가 감초엇다는말인고」

「어듸잇슬가요」

「아마그녀자가 가지고다니는것이지요 사진이 너무 크니와의장속가를때는 쉬웁게는허 두기가 어려우니 또어듸다가 감초엇는지도 모르겟소 왕이두번이나그집을뒤지게 하얏서도 못차저내엇다니와 필경어듸다가 감초엇겟지오」

「그러면 어듸감초엇슬가요」

「은행이아니면 변호사에게감초엇는지도 모르지요 녀자는본래비밀를 조화하니셔 다른사람에게맛기지안코 자긔혼자 엇더케숨겨둔지도 모르지요 또몃칠아니며는 그사진을쓸일이 잇스니 커필경집히 어듸두든 아니하엿겟지요」

「그러치마는 두번이나뒤커도업다고하엿지오」

「그것은서즐술을 모르는사람들말이야 합것무엇잇소」

「청하셧는 엇더케차저보실 터이오」

「나는차저보지를아니하겟소」

「그러면엇더케하실터이오」

「그녀자를식혀서 내게보이게만들겟소」

「말을아니드르면 엇지하실터이오」

「아니듯지못하지요 지금마차소리가나는데 로애련이가 도라오는것이요 내말대로 잘하시오」

지는청하의말이 굿치지도 아니하야마차의 등불이 환하게 켜면골모통이로부터 비초여왓다 마차가 애련의집압헤 다으니까 우연히 담배를먹고잇던 로동자중에서 한사람이 달녀드러마차문을 여러주엇는데 이편된돈을하며는 돈푼이나엇어면는 욕심에 정순히처하고 마차문을 열녀고하엿지마는 또그와갓흔 사람이나따라와서 돈이생기는 일이나와서로 다토아 마차문을 열녀고하다가 큰싸홈 나게되여 수십명의구경군이 쇄여드러와서 마차를 둘러쌋는대 로애련이 로말을하면 질못하다가는 손가방도엔앗길모양이엇슴으로 한정하는 덤비이것다가 그녀자를 보호하노라고 그가운대로뛰여 드러갓스나 그녀자압헤가서는 소리를크게지르고 업드러젓는데 엇던놈이 칼질을하엿던지 얼굴에서피가팔々쏘다졋다 그뼤에 싸홈하던놈들은 열々이 도망질을하고 의복을 선명하게입은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너머지는청하를 구원하려 몰켜왓다 로애련이는층々대로 급히올나가다가 옷둑서서도라보고

「그량반이몹시상하셧소」

「죽엇습니다」하고 여러사람이 대답을 하엿고 그중에한사람이

「아직도목숨이 부터잇습니다 그러치만 병원으로가는 동안에 죽을것갓습니다」

구경군중에 녀자한사람은

「그어른이 아니더면부인네가욕을본상이 보실것을 그리하엿지요 그놈들은 도적의무리들 이요」

「아직도숨은 수이는군」 또엇던사람은

「죽어가는사람을이렇게 길바닥에누여둘수가 업스니 되으로좀드러다 누이셔요」

「그러셔요 응접실로드려오셔요 이리로 드려오시오」

로애련의말을 드른사람 들은침하룸맛드려 그집으로드려다큰방에누혓는데 방안에붉은빗게켯고 류리창에 가리운것이 업시잘드러다보이엿다 그뼤에 청하가감차이정신을 일흔것은 내가자세히아지 못하엿지마는 로애련이갓치고흔 녀자를 대하야놀나운일을하려는 우리의계획은 생각할사록 나는속으로 붓그러운마음을견되지 못하엿다 더군다나 청하가너머지는 것을보고자긔집으로 드려다누힐만치 착한마음을가진 녀자를놀내는 일은참으로사나희 된우리의 붓그러운일로 생각할수밧게 업섯다

新舊積滯散

아모리 오랜된체증이던지 다른약으로효험을못엇으신여러분은잠시라도 주무커마시고 곳복용하시오 이약을한번만시험하야보신이는다말삼하시되진실로하낫이주신영약이라고하야이신구체산은사회에신용을독점하얏나이다

주치 구체미로체소화불량 가삼아리、창만、식체、구토、체중、포만、한체증、가삼이쓰리고 모든체증이되는 기외 조선유일의명약

藥價 一劑四十日用 一圓四十錢

京城府寬勳洞 漢城大藥房

누구시던지信用하는 世昌金鑛納 吉本藥房에서大瓶、八圓五十錢 小瓶、一圓에放賣함

(二)敎會分立 二處가分立 (三)傳道會經營 男傳道人四人派送 (四)査經會經營 郡査經會一次、主日各視察區域女査經會二次 (五)長老聘立許諾과投票許諾 學校振興講習會二次 (六)神學校秋期開校修業生六人 將立六人、投票二十六人 (新義州)

平壤天道敎區任會

本月四日午後一時에天道敎平壤敎區에서는區任會를開하고敎理宣傳과其他事務處理에關한事項을協議한後곳閉會하얏다더라(平壤)

平北義山都諸職會

義山(義州朔州昌城碧潼渭原南滿一部)第三回都諸職會는陰七月廿四日부터七日間義州古舘面舘里敎會堂에會集하야委員長朴信로宣敎師의司會下에每日上午九時에新禱會同四十分에聖經講義(敎師는金善斗安承源朴熙道金碩伉崔明俊金炳稷牧師諸氏)同十一時에는講演會를開催한바講演會는平壤金善斗牧師가擔하야「査經은人의精神、吾人의選擇、信者의重任、使徒의復興會、治者의方針、吾人은活石、旅行者의箴言」이란各題로八回의講演이有하얏는데氏의眞理解釋은完然히吾人의心魂을鼓動하야一般聽衆의耳目을驚動하얏스며且每日午後三時에는討論會로會集하야「新入者引導方針、主日工課敎授方法、職員의本分、敎會와青年의責任」이란各題로敎役者間에意思交換이有하얏스며八時부터는傳道人들의報告가有하얏고二十九日下午에는當地敎會의懇篤한歡迎會가有한바宋義信氏의指導로音樂隊長金炳稷의批覗基督靑年會音樂隊가演奏會를開催한바定刻前聽衆은無慮千名에達하야盛況을呈하얏스며翌三十日同諸職會는閉會되얏는바今般의集會는七十二敎會이며職員은四百餘人이라더라(新義州)

平北義山老會開會

第三回平北義山老會는去陰七月三十日下午三時義州古舘面舘里敎會內에開催하얏는바前會長安承源氏司會下에來賓金善斗牧師의「主예수를思하야」란問題로講道한後役員을改選하니會長金碩伉、副會長李俊化、書記金順、副書記鄭[illegible]、會計姜[illegible]、副會計李允兵諸氏가被任되야三日間에三十六式의秘密會議를處理하얏는바其重要事項은如左

(一)職員異動 新義州敎會에韓錫晉牧師、碧潼邑金炳禧牧師、光岩南面區域에金志華助事、光月華面區域張晟拭助事、玉尙區域에中國鮮助事、碧潼區에李元楨助事、碧潼四區에朴定欽助事、碧潼便區域에金道聖助事가被任

李容奎氏의慈善

全南寶城郡禮洞李容奎氏는今般隣里鰥寡孤獨及極貧者略二百餘戶에對하야其食口多少를量하야每戶正租三斗乃至七斗式合計三十五石을賑恤하고其他小農者百餘戶에對하야는秋成後新米本色으로報償하라하고三十餘石을均分貸付하얏스며且同面內一般에게百有餘石을散貸하되時價每石貳圓式低減케하야親疎를勿論하고平均分配하얏슴으로稱頌이藉々하다더라(寶城)

平壤登記所登記數

平壤地方法院登記所는平壤府와大同郡一圓에對한不動産登記와其他商業에關한登記를取扱한件數가今年一月一日로同八月末까지의個數件數登錄稅額이如左하다더라

一、件數 一萬九百件
一、個數 二萬一千一百十九個
一、登錄稅 八萬一千三百八圓十九錢 (平壤)

面吏員視察團出發

平南大同郡管內各面吏員一行三十名은京城市街와仁川海를求景하고다시高陽郡始興面等地를視察키爲하야本月三日出發하얏다더라(平壤)

殷栗郡廳移轉問題

黃海道長連郡은年前殷栗과長連이合郡되든同時殷栗郡을廢止하얏든바近來에至하야舊長連邑人民들은長連發展會를組織하고同發展의一策으로殷栗郡廳을長連으로移轉하기를運動하야旣히道知事와[illegible]가有하다는說이有하며八月廿八日에는長連發展會總會를召集하야有力者三百餘名이會集한後會長全致恒氏司會下에郡廳移轉費二萬六千圓을義捐으로募集하야納付할事를決議하얏다하며殷栗邑人民等은此의對策으로郡廳移轉防禦會를發起하야八月二十九日에二百餘名이會集한後洪淳翰氏의主宰下에[illegible]長連警察署를殷栗로移轉하기로運動할事를一致可決하얏다는데此에對하야一方面은郡廳移轉이村里에居住하는有力者中에서는何等特別한影響이업슬뿐아니라二萬六千圓이면學校二個所를設立할것인대如此한用途에義捐할수는업다고反對하는者가多하다더라(松禾)

德新學校維持會

北靑德城面維荷洞私立德新學校는零瑣한財源으로同校設立者趙炳奎氏와校長韓錸洙氏의苦心維持하던바今夏에同里韓武趙炳鎬韓國鍾李瑞翼諸氏의發起로維持會를組織한結果今般財産이約萬圓에達하얏스며더욱히熱誠에누길바는同里貧戶張基尙君의從來備畜한汗血의餘金二十圓의寄附가有하얏다더라(北靑)

萬泉面內敎育狀況

黃海道鳳山郡萬泉面內의敎育狀況은數次本紙에報道하얏거니와本月二日에는特히當支局에서出張하야該面內의學校와講習所를調査한바樣洞私立明勝普通學校는勿論諸般設備가充分함은外라男女在籍生이三百六十餘名이며講習所로는該面內에合十二個所인데其中第一完備하기로는海棠里金顯祥氏의所轄講習所와李遂元氏의所轄鳳陽園農務講習所이라視察中에農務講習所長李遂元氏의歷史를聞한즉氏는十有餘年前에京城을떠나農村生活의趣味를보고자此地에이르러果樹栽培와敎育에從事하엿다는바[illegible]所와八百餘名의多數學生은氏의十年間努力한結果이라云치아니치못하겟스며同講習所附近에는地方留學生二百餘名이寄宿하는故로夜間讀書聲이不絕하며今秋期부터는學生用適當所外施設되고連續하야女子講習所도設立코자目下經營中이라는데氏에對한一般人士의稱頌이多하더라(沙里院)

靈光幼稚園設立

全南靈光邑有志鄭仁洙、朴正煥、曹喜忠等諸氏는在來官舍所有財産二千餘圓으로幼稚園을設立하야九月一日에開園하얏다는데生徒는五十餘名이오先生은三人이라더라(光州)

光州高普校新建築

光州私立高等普通學校는四通五達의交通이便宜한[illegible]附近에一萬二千坪의基地를買收하야校舍新築工事에着手中인바建築工費는四萬圓인데此는當局의負擔이라하며來年度에는官立學校로變更되리라더라(光州)

衛義信女校長轉任

馬山府私立義信女學校校長衛大郁孃은該校에就任한지以來三個星霜에敎育界와一般靑年界에熱心한바多하던바今般釜山日新女學校長으로轉任되얏슴으로馬山一般社會와學校及敎會側에서는遺憾不已한다하며其代에는前義信學校長으로勤務하든鄭嬌孃이復任되다더라(馬山)

平壤漫筆

社會의不協調

平壤支局 一記者

누구는결핏하면무슨融和를提唱한다아ー우리난무엇보다도우리의融和團合하기를急先務라고提唱한다어ー時代何邦國에는所謂老少의反目、新舊의衝突、男女의忌避、黨派의異同、門閥의差別等이업는것은아니지만은우리社會에는一層더甚한듯하다

由來의猜疑를一朝一夕에豁否하랴함은心頭에肉을割却함에잇는줄은豫想치못하는바는아니다그러하다고이焦眉에急한問題를默想에藏置하야둔다는것도極히死活에就하는問題이다

最近數年來로무삼會무삼團무삼敎들이水盆에綠豆나물갓치모다머리를들고나섯다그러나其內容의充實함과成績의完全함을보지못하고或은老少의別或은男女의別或은敎派의別或은團會名의不同으로反目衝突攻擊或은二階級 階級의不和同으로因하야支離破裂、새其團體自身은有名無實이요顚之倒之에며餘存毁謗이야結局亡滅多射의勢를取하게되고본즉그야말로그것을가르처무엇이라고하다고한다 어느社會어느志士가是를容忍한다하면敢히不忍하며是를可히하할것이라하면孰을可히不爲할바이라

古人이言을有히앗스되豺狼이當路에狐狸를問할수가업다는것이니우리社會의腐敗함을是비케하며우리民族의頑昧함을文明케하며우리의계아모것도업는것을잇도록하려고努力하는마당에무엇이무엇을區別하고무슨派가무슨派를區別하며男이女를侮視하고老少가서로不和하야어느날에무슨일을하려고하면足의交鋒함과同一하게서로서로和解融合치못함은果然何을立하야生을取하려함인가抑死를甘히忍하는것인가

◇ ◇ ◇

牧丹峰의空氣를한가지로吸收하고大同江물을한가지로마시며檀箕의後裔가同一한우리들가지로사라가면서社會文化의發展을圖謀하려고하는우리는손을맛잡고步調를一하게서로反對하지아니하며또한무슨會이니무슨團이니하고날마다趣旨書니規則書만늘기에만紛忙하지말고한아이라도착고ー實現하야주기를바라는바이라

우리平壤에도多數의會와團이라는것이얼마나만흔가[illegible]

鷄林甲友會組織

今般咸南永興郡有志諸氏의發起로鷄林甲友會를組織하야本會館을本郡邑內에置하고漸次支會를各地에設할터이라는데同會의目的은會員相互의親睦、慶弔에對한同情、新知識의交換、産業의獎勵及研究、風俗改良、精神修養、能力의鍊磨等인바此의目的을達키爲하야特히機關雜誌의發行又는巡講을實行할터이며且被選된役員은左記와如하다더라 ▲會長李敦化▲副會長張明保▲總務李成煥▲庶務部長黃鏞籍▲學藝部長李鵬徽▲講演部長金昇泰▲産業部長張龍潤▲運動部長朱現奎▲外交部長李承洽▲書記金會鵬▲會計李晩化以外地方委員及贊助委員數十人(永興)

各地靑年團體

江景各校秋期開學

湖南線江景에在한各學校秋期開學日字는如左하다더라

私立萬東學校	九月二日
同女子部	九月三日
公立普通學校	九月一日
公立商業學校	九月一日
公立尋常小學校	九月一日

(江景)

加平엡웟婦人夜學

加平엡웟靑年會主催로朝鮮中央靑年會長尹致昊氏를請邀演說한것은旣히報道하얏거니와同氏의講演에感激하야[illegible]當地婦人夜學의若無의現狀을愍歎히녀여每月拾圓金식補助하게됨에基하야九月부터는任敎師一人을延聘하야敎鞭을執하는中인데出席夜學生이貳拾餘人이라더라(加平)

佛敎靑年會講演會

八月三十日下午八時中里天道敎敎區室에서海東佛敎靑年會主催의講演會가開催되엿는데演士宋奉萬氏는「깃븜가운데어엇지할고」란題로熱辯을吐하야滿場聽衆의喝采를博하얏다더라(咸興)

綾州女子夜學好績

全南和順郡綾州靑年修養會의經營으로當地基督敎禮拜堂內에設置한女子夜學講習所는講師嚴守卿女史의親切한敎授와各講習生의熱心通學으로設立된지五六朔에不過한今日에尙히優良한成績을擧하얏슴으로講習生의逐月增加하는狀況이라더라(綾州)

加平男女夜學狀況

加平엡웟靑年會主催男女夜學은夏期休學中이더니本月一日에開學式을禮拜堂內에擧行하얏는데當日出席員이五十餘人인바今後漸次增加할터이며敎師는男子部에李絃奎、金行鎭、洪淳軾、李彭鎬諸氏요女子部에李珣玉、朴賢淑兩氏이라더라(加平)

德川靑年會復活

우리社會에文化를宣傳하고우리民族을文明에引導코자하는主義를가지고其目的範圍를하여가지던지貢獻코자努力하던德川靑年會는[illegible]會員多數가合力하도록되야諸般設備와온갖計劃을果然實現의[illegible]어버리고一層奮勵하야地方敎化의普及을圖한다는데一般人民과多數靑年은慶賀를마지아니한다더라(平壤)

朝鮮人産業大會々員募集

臨時朝鮮人産業大會의開催할時期가在邇하온바本會々員은旣히募集하오나年齡二十歲以上男子되시는僉彦은倍前贊同하시와速々히應募하심을希望하옵고[illegible]

會員募集은事情에依하야九月十日外지延期하얏사오니期間內에本事務所로申込하심을敬要

京城府堅志洞八八朝鮮經濟會內

臨時朝鮮人産業大會

委員長 朴泳孝

女子巡講團東萊着

우리朝鮮一千萬女子界를爲하야文化宣傳運動으로各地를巡回하며到處마다大歡迎과大盛況을呈하든朝鮮女子敎育會巡回講演團一行金美理士女史外九人은八月三十一日[illegible]九月一日正午에東萊에到着하얏는데當地靑年俱樂部와東萊靑年會合同의歡迎으로[illegible]當日午後八時부터東萊高等普通學校運動場에서講演을開催하고[illegible]女史의바요링의獨奏가有한後[illegible]女史의「社會發展의原動力」이란題로金羅福孃의熱辯이잇슨後宋愛卿女史의「小愛」란獨唱과金美理士女史의本女子敎育會事業紹介가有한後金宋洗娟及宋愛卿女史의「故鄕山川」이란合唱이了하자[illegible]女史의「時間은生命」이란[illegible]의熱辯이有하얏고다음金美理士女史의[illegible]衆은七百餘名에達하야大盛況을이루고同十一時頃에閉會하얏는데同一行은其翌日東萊를出發하야東萊의有名한海雲臺를探勝하고午前十一時發列車로大邱로向하얏다더라(東萊)

苦學生巡回劇來仁

苦學生갈돕會의地方巡演團一行은去四日에來仁하야市內築港의[illegible]에서下午八時부터以友俱樂部와仁川靑年會의後援下에人情劇「運命」二幕과悲劇「貧困者의무리」喜劇「遺言」一幕을行演하얏는데觀客이多數하얏스며同情金이百十餘圓에達한바金額과氏名은如左하다더라

金仲賢白三十圓▲以友俱樂部[illegible]▲仁川靑年會、商物小賣組合、飮食店組合、西卿錫、崔求永、李夏卿、河相勳、洪任範、鄭永吉、韓龍周各五圓▲李昌文四圓▲裵山星三圓五十錢▲金鍾浩、俞鎭洪、裵秀名三圓▲崔鉉斗二圓▲任洪根、無名氏、徐源璟、鄭誠萬、李夫人、金夫人各一圓、金興吉五十錢(仁川)

◇讀者文壇

▷定規◁ ◇揭載與否와添削의權은本社에在함 ◇原稿는一切返還치안니함 ◇投稿는반다시「讀者文壇」이라고朱書要함

◇나

熊川 任炳奎

아ー나는사람(人生)이다 또다시말하면萬物中에靈長이다 分別만흔男女老少中에한가지位를차지한산아희(大丈夫)이다 나는나의할것이오남은남의할일은남이할것이다 아!내가무엇을엇더케할가? 나의할일은만코엇더케할지도모르는世上이다 나의民族의未開함과나의家庭의不徹底한生活을改造하여야할것이다 오ー그뿐이랴!오히려나의自身의不滿足을不徹底를고치고完全대여 할말이만흔가? [illegible]

一九二一、八、二九

세상의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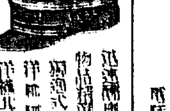
[illegible]

新刊紹介

[illegible]

◎九月一日(木曜) 新寫眞順序 ▲瑞西의高原 全一卷 ▲一網打盡 全三卷 ▲幽靈騎手 全四卷 ▲食慾 全六卷 團成社

健腦補藥 光南商店



消風丸 壽山藥房 京城鍾路二丁目

賭買入札 開城蔘業組合

半島洋襪織造所 薄利多賣 堅固無比 代金引換 迅速酬應 主 李基淳 平壤水玉里二五九

學生帽子 小兒帽子 色帽子 各種 中折帽 鳥打帽子 製造 金成商店 京城府鍾路通二丁目八十番地 (振替京城六四三番)

珍袖詳解 漢鮮新玉篇 發行所 滙東書館 朝鮮圖書株式會社

高麗人蔘 健康은人世의至寶 人蔘은健康의寶庫

明紬販賣廣告 鄭容九

朴德裕洋靴店

祝三一醫院開業